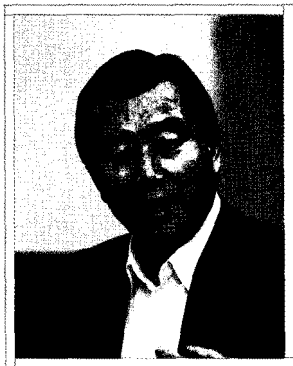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공사는 지난 6월 23일~26일까지 4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는 올해 6회째 행사로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에게 80개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7만명 이상의 도시민이 다녀갔다. 전국 지자체와 체험마을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여행을 소개했으며 마음은 있지만 선뜻 시골로 떠나기 어려운 도시 사람들에게 도심 한가운데서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였다.

이 같은 체험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도 공감을 얻었다. 지난 해 농산어촌 관광 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했던 'Rural 20 프로젝트'에 2,3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전통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이들은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농산어촌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고 집중 홍보하여 외국인에게까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올해도 9월부터 1,300명의 체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명동에 한방약초 안테나숍인 '목화토금수'를 개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소비자들이 국산 한방약초를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하고, 전통 한방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목화토금수'는 공사와 상주, 안동 등 12개 시·군이 광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방제품 전문매장으로 명동 오프라인 매장 개장과 함께 온라인 판매숍인 <http://yackcho.com>을 통해서도 전국의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한방약초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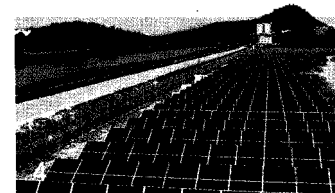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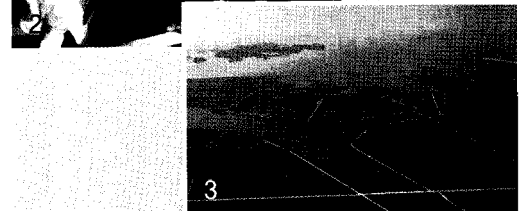
공사는 향후 5년간 2,600억을 투자해 재배, 가공 및 유통, 서비스산업 육성 등 한방약초산업의 세계화,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테나숍 개장으로 한방약초산업은 기반을 갖추어 농업인과 기업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농어촌을 1차 산업공간에서 생산과 유통, 체험형 관광이 어우러진 2, 3차 복합산업공간으로 발굴하기 위해 농촌마을을 종합개발,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정의 최우선 목표는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가 중요하다.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지역개발과 연계하고 쾌적한 농어촌 공간을 조성하여 자본과 사람이 모이고 활력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메니티란?**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로 '농촌'이 붙은 '농촌어메니티'란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적성을 주는 요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



1. 뗏목체험(인제 넷강마을)
2. 외국인-뭇글씨체험(단양)
3. 대호간척지
4. 영암태양광발전소